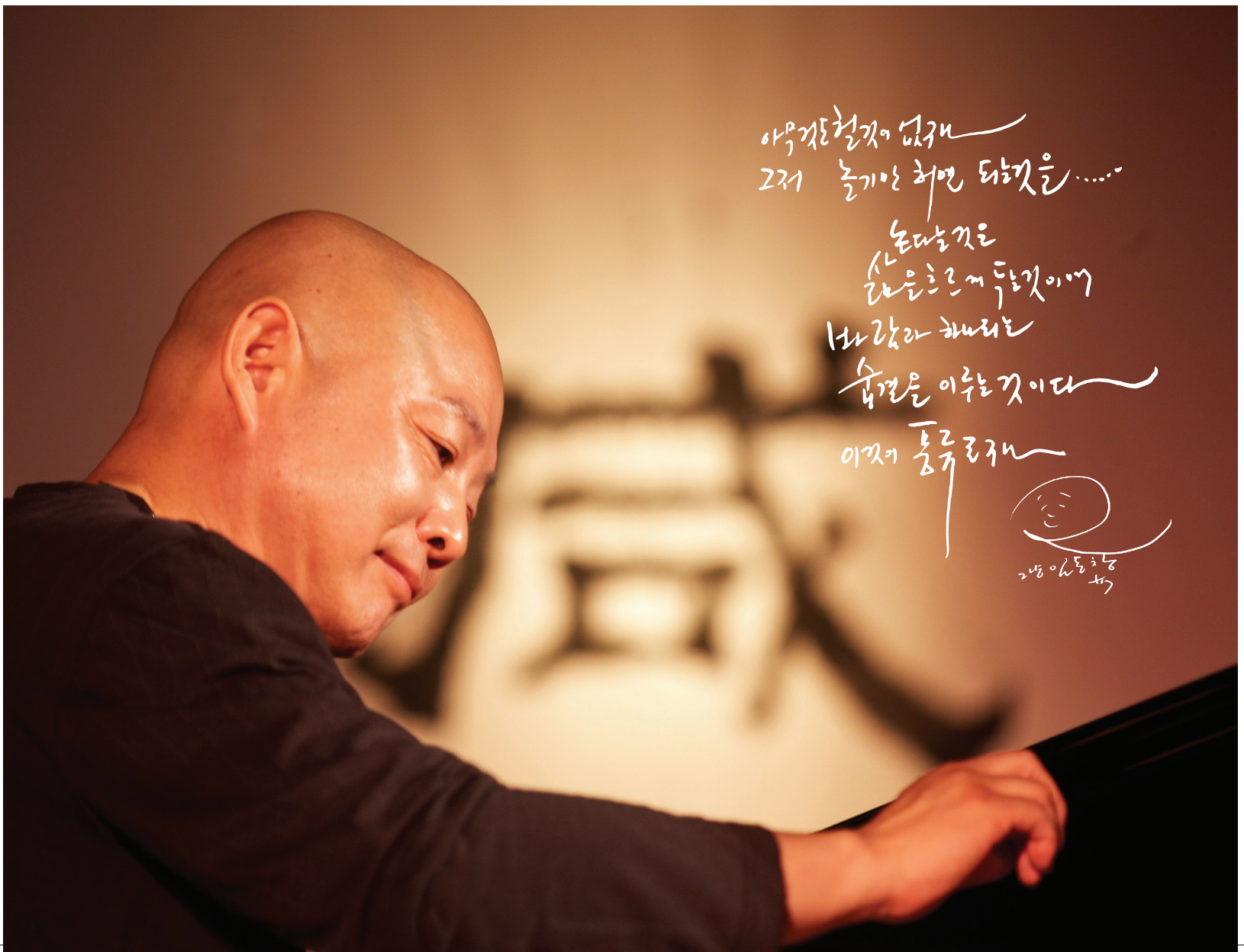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콘서트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 일시_ 2013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8시 ● 장소_ 충북 영동군 용두공원 야외음악당
- 주최_ 영동군 ● 주관_ 영동문화원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콘서트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임동창. 風流피아니스트. 허튼가락 창시자. 국악명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국악인, 신명의 소리를 만드는 천재 작곡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유희하는 피아노의 신선. 클래식과 국악 모두 정통한 놀라운 음악성과 전대미문의 파워풀한 피아노 연주, 수도승 같은 영적 존재감으로 인해 그는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손만 뻗으면 되는 바로 그때, 모두가 그를 원하던 2000년 그는 돌연히 사라졌다. '오랫동안 내 음악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필생의 화두를 풀기 위해서였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며, 방대한 양의 작품을 쏟아내 텅 비워진 상태에 이른 그는 '조상'을 만났고 화두가 터져나갔다. 2010년 누구든지 내면의 음악을 꺼낼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음악, <허튼가락>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발표한 이후, <임동창 풍류>라는 이름을 건 공연, 음반, 저작 등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된 풍류를 일깨우고 있다. 그가 평생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찾은 답, 풍류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풀어져 흐르듯 살라'는 삶의 원리이며 임동창이 사람들과 나누고픈 음악과 교육과 삶의 지향점이다. 올해 전북 완주군에서 풍류학교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풍류성을 되찾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 음악 속 우리나라 DNA를 가지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자는 K-Classic의 대표주자로 감성적인 대중취향의 소품, 클래식적인 협주곡에서 격조 높은 가곡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서양에서 유입된 지 100년 넘는 피아노를 드디어 국악기로 만든 <임동창 피앗고>를 내놓아 평단과 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입체적인 강렬한 사운드의 피앗고로 한국인의 진면목을 보여줄 멋진 대중음악을 선보이겠다는 그의 귀추가 주목된다.



- ① **수제천** ● 작곡/피아노: 임동창
- ② **청산은 나를 보고** ● 작사: 나웅선사 ● 작곡/피아노: 임동창 ● 노래: 송도영
- ③ **自然歌** ● 작사: 하서 김인후 ● 작곡: 임동창 ● 노래: 송도영/정샘
- ④ **새야새야** ● 작곡: 임동창 ● 노래: 송도영/정샘
- ⑤ **피아노협주곡 <놀이III>** ● 작곡/피아노: 임동창 ● 생활악기: 영터리악단 "흥야라"
- ⑥ **흘러간 옛노래** ● 멜로디온: 임동창 ● 노래/연주: 영터리 악단 "흥야라"
- ⑦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 작사/작곡/멜로디온: 임동창 ● 노래/연주: 영터리악단 "흥야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깊고 기름진 나라
 하늘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서로서로 도우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
 하늘아래 가장 자비로운 나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자연 사랑하는 나라
 하늘아래 가장 한가로운 나라
 잃었던 우리기운 (뽕궁뽕궁)우리기운 되찾아 되찾아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